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연구*

조희정**

<차 례>

- I. 서론
- II. 서지 사항의 변화
- III. 단위 체계의 변화
- IV. 학교 급별 1학년 1단원의 변화
- 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초등·중등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국어 교과서가 밟아온 길을 살피는 이유는 현 교과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이어 2011년, 또 다시 교육과정이 새롭게 마련되고¹⁾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요청되면서, 최근 몇 년 간 국어교육학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 교과서 집필

* 이 논문은 제49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1. 9. 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논의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정 토론자 구자황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조선대학교 조교수(imnot@chosun.ac.kr)

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05]—국어과 교육과정>, 200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05]—국어과 교육과정>, 2011.

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국어 교과서는 기존 국어 교과서의 한계와 문제점, 장점과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집필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방 이후 기존의 국어 교과서가 보인 특징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한계들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되며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국어 교과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어 교과서의 수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검토는 국어 교과서를 수집해온 개인과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박봉배는 이 분야의 선편을 잡은 인물이며, 2000년대 초중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가 국어 교과서의 수집에 집중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국어 교과서의 서지 사항(박봉배 1992 ; 박봉배 1997a ; 박봉배, 1997b ; 김혜정, 2004),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박봉배, 1997a ; 박봉배, 1997b), 교과서 수록 텍스트 자료 유형 분류(김혜정, 2009), 교과서 수록 제재의 현황(김혜정, 2005 ; 서명희·조희정, 2006 ; 조희정·서명희, 2006 ; 줄저, 2011), 역대 초등 국어 교과서 내 문법 교육 내용의 특징(주세형, 2006) 등 역사적 관점에서 국어 교과서의 대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가 변화해온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잇되,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시기별 국어 교과서를 선별하여 변화 양상을 대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매 시기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가 복수로 존재하는바, 국어 교과서의 모든 것을 이 논문 안에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을 살핀 기존 성과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되, 국어 교과서의 변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교육과정별로 대표 교과서를 선별하여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교수요목기는 학제와 국어 교과서의 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교수요목기의 국어 교과서는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 이전의 최초 한글 학습서로 베스트셀러였던 <한글 첫 걸음>²⁾부터 교수요목이 공표되기 이전에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초등 국어 교본>과 <중등 국어 교본>을 검토 자료에 포함한다. 또한 교수요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6·25 전시기에 발행된 교과서를 포함한다. 이후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자가 접하는 첫 교과서 — 초등학교 1-1학기, 중학교 1-1학기, 고등학교 1학년(혹은 상권) — 의 초판본³⁾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⁴⁾

먼저 시기별로 국어 교과서의 기본 서지 사항을 교육과정별로 학령에 따라 정리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서지사항은 국어 교과서가 처한 외형적 조건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역대 국어 교과서의 단원 체계와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매개하는 교수-학습 대표 자료이며, 단원은 교과서 교수-학습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교과서 단원의 체계와 내용을 통해 문서화된 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의 의도적 교육과정을 해석해낸 당대 국어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관점과 학습자들이 경험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험적 교육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단원 체계의 변화 양상과 학교 급별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변화를 고찰한다.

2) 이종국에 따르면 <한글 첫 걸음>의 초판은 1백만 부가 보급되었고, 1948년까지 매년 같은 수준으로 보급되었다(이종국, 2001 : 124).

3) 1차 초등 국어 교과서의 초판은 1956년에 출판되었다. 자료 수집상의 문제로 1차 초등 국어 교과서는 1959년본을 검토한다.

4)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는 국정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검인정 국어 교과서들, 특히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가 자리 잡기 이전인 1차 교육과정 이전 검인정 국어 교과서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검정 교과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자리를 달리하여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II. 서지 사항의 변화

국어 교과서는 각 시기 국가 단위의 의도적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교수-학습의 물리적 매개이다. 국어 교과서에 대한 서지사항은 국어 교과서가 교수-학습의 물리적 매개로 지닌 특징과 국어 교과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서지사항 중 저자, 편찬자, 발행자 등은 국어 교과서의 책임 소재와 귀속 여부를 알려주는 단서로 기능할 것이며, 서지사항에 포함된 도서의 판형과 색상의 사용 여부, 삽화 등은 당대 공 교육 내에서 허용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암묵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다.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의 서지 사항 변화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제시하며, 교과서명, 초판 발행일, 판형, 저자, 편찬자, 발행 기관을 밝혔다. 교수요목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존재하였기에 ‘중등’으로 표시하였다.

<표 1>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 기본 서지 사항 변화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초판 발행일	판형	저자	편찬자	발행/인쇄
교수 요목 1946 -1955	초등	한글 첫 걸음	1945년 11월 6일	국판 후백	조선어 학회	(없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자) 조선교학도서 주식회사 (인쇄자)
	초등	초등 국어 교본 상	1945년 12월 30일	국판 후백	조선어 학회	(없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자) 조선교학도서 주식회사 (인쇄자)
	초등	초등 국어 1-1	1948년 10월 5일	국판 후백	문교부	(없음)	문교부(발행자)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초판 발행일	판형	저자	편찬자	발행/인쇄
교수 요목 1946 -1955	초등	국어 1-1 (전시기)	1954년 3월 5일	4×6판 흑백	문교부	(없음)	문교부(발행자)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 (인쇄/발행소)
	중등	중등 국어 교본 상	1946년 9월 1일	국판 흑백	조선어 학회	(없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자) 조선교학도서 주식회사 (인쇄자)
	중등	중학교어 1-1 (전시기)	1954년 3월 31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차 1955 -1963	초등	국어 1-1	1959년 3월 15일	신국 색상	문교부	(없음)	대한문교서적 주식회사
	중	중학교어 I-1	1956년 3월 25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고등국어 I	1956년 3월 25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차 1963 -1973	초등	국어 1-1	1963년 2월 15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교어 I-1	1966년 1월 10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I	1968년 1월 10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3차 1973 -1981	초등	국어 1-1	1972년 11월 15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교어 1-1	1974년 2월 20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1975년 2월 20일	신국 흑백	문교부	(없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 과정	학명	교과서명	초판 발행일	판형	저자	편찬자	발행/인쇄
4차 1981 -1987	초등	바른생활 1-1	1983년 3월 1일	4×6배 색상	문교부	(없음)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국어 1-1	1984년 3월 1일	신국 흑백	문교부	한국 교육개발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고등학교 국어 1	1984년 3월 1일	신국 흑백	문교부	한국 교육개발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5차 1987 -1992	초등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1989년 3월 1일	4×6배 색상	문교부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한 이)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국어 1-1	1989년 3월 1일	신국 흑백	문교부	한국 교육개발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고등학교 국어 (상)	1990년 3월 1일	신국 흑백	문교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 위원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6차 1992 -1997	초등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1995년 3월 1일	4×6배 색상	교육부	한국 교육개발원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국어 1-1	1995년 3월 1일	신국 흑백	교육부	한국 교육개발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고등학교 국어 (상)	1996년 3월 1일	4×6배 흑백	교육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7차 1997 -2008	초등	국어 읽기 1-1	2000년 3월 1일	4×6배 색상	교육 인적 자원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중	중학국어 1-1	2001년 3월 1일	4×6배 색상	교육 인적 자원부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 대학교 1종도서 편찬위원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고등학교 국어 (상)	2002년 3월 1일	4×6배 색상	교육 인적 자원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주) 두산

교수요목기인 1948년에 발행된 <초등 국어 1-1>, 일명 ‘바둑이와 철수’를 포함한 교과서부터 초등 국어 교과서는 각 학년 2종씩 총 12종이 발행되었다(박봉배, 1997 : 45). 해방 직후의 중등학교 6년 체제는 1952년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되면서, 중학 국어 교과서는 1953년 발행된 <중학 국어>부터 각 학년 2종씩 총 6종이, 고등 국어 교과서는 1952년 발행된 <고등 국어>부터 각 학년 1종씩 총 3종의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초등 국어 교과서는 4차 교육과정기에 1, 2학년 교과서가 <바른생활>로 통합되었다가 5차 교과서부터 각 학년 학기별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체제로 변화하였다.⁵⁾ 중학 국어 교과서는 7차부터 각 학년 학기별로 <중학 국어>와 <생활 국어>의 2종 체제로 변화하였다. 고등 국어 교과서는 2차와 3차 교육과정기에 인문계와 실업계 교과서가 분리되었으며,⁶⁾ 5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 2종의 교과서를 학습하는 상, 하권 2종 체제로 변화하였다.

<한글 첫 걸음>은 1945년 11월 6일 발행되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청에서는 1945년 9월24일을 기하여 전국 공립 초등학교의 개교를, 10월 1일을 기하여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 교육의 재개를 명하였다(이응호, 1992 : 31). 각급 학교의 개교와 함께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조선어학회에 위촉하여 국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조직한 후, 1945년 11월 6일 <한글 첫 걸음>을, 1945년 12월 30일 <초등 국어 교본>을 발행하였다.⁷⁾

정부 수립 이전 국어 교과서의 저자는 민간 학회인 조선어학회이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내에서 문교 행정을 담당하는 문교부-교육부-교육

5) 5차 초등 국어 교과서는 전 학년이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체제로 구성된 반면, 6차 초등 국어 교과서는 1~4학년의 경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체제를, 5~6학년의 경우 <말하기·듣기·쓰기>, <읽기>의 2종 체제를 갖추었다, 7차 초등 국어 교과서는 1~3학년의 경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 체제, 4~6학년의 경우는 <말하기·듣기·쓰기>, <읽기>의 2종 체제로 변화되었다.

6) 2차, 3차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 국어 교과서의 공통 제재가 많았으나, 실업계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한시 작품들이 인문계 고등 국어 교과서에 대거 수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졸재(2011 : 72) 참조.

7) 이 시기 국어교육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재찬(1996), 남민우(2005), 김동환(2009) 참조.

인적자원부로 이어졌다. 4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교과서의 저자와 편찬자가 분리되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어 교과서의 저작권은 정부로 귀속되는 반면, 교과서에 담긴 교수-학습 내용은 새로운 연구진들에 의해 관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 편찬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려대학교·한국외원대학교 1종도서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등으로 변화하면서 국가 기관에서 민간의 기관으로 이월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기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연구와 집필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 국어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기에 교과서 연구와 집필에 참여한 인사들을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게 한다.⁸⁾ 국어 교과서에 연구진과 집필진이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4차와 5차 이후로, 초등은 5차 국어 교과서부터 연구진과 집필진⁹⁾을, 중학교는 4차 국어 교과서부터 연구진¹⁰⁾을, 고등학교는 4차 국어 교과서부터 연구진과 집필진¹¹⁾을 교과서에 밝혀 두었다.

초기 국어 교과서의 색 사용과 판형은 흑백의 국판과 흑백의 신국판이 주를 이루었다.¹²⁾ 이후 4차 초등 국어 교과서부터 색상(컬러)의 4×6배판으로 변화하더니, 점차 전체 학교 급별에서 색상(컬러)의 4×6배판으로 고정되었다. 국어 교과서의 판형이 신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변화한 것은 ‘읽기’ 중심의 강독 교재에서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어 교과서는 읽기 자료들의 개별 갈래별 대표 정전의 선집으로 간주되다가, 국어교육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도록 요청되면서 국어 능

8) 국어 교과서는 문학과 문학 교육 사이의 상관성을 추적하는 자료로 주목되었다. 국어 교과서의 연구진과 집필진을 연결 고리로 삼아 연구진과 집필진의 문학관이 국어 교과서에 투영된 바를 검토하는 연구도 제출된 상태(정재찬 1996 ; 김동환, 2009)이다. 이들 연구는 해방 직후 현대 국어교육의 형성기에 집중하는데, 교과서 저자가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저자 확정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 5차 <국민 학교 국어 읽기 1-2> 연구진은 김은진, 노명완, 심경석, 이응백, 정준섭, 집필진은 권경안, 김은진, 신현태, 임만영, 임미혜, 홍순태다.

10) 4차 <중학 국어 1-1>의 연구진은 정한모, 강운호, 이병호, 정진권, 이상룡, 남미영이다.

11) 4차 <고등 국어 1>의 연구진은 김열규, 김중호, 이용주, 홍용표, 남미영, 정종태, 정준섭, 집필진은 박승준, 최현섭, 한연수이다.

12)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색이 흑백을 주를 이루던 시기에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앞부분 삽화에서는 색상(컬러)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력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중심의 워크북 형태로 변화해갔다. 국어 교과서의 판형이 커지면서 학습자의 국어 활동이 단계화되고 구조화되어 교과서에 포함되었고, 색상(컬러)을 도입하며 국어 활동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게 되었다.

III. 단위 체계의 변화

국어 교과서의 기본 학습 단위는 ‘단원(單元, unit)’이다. ‘단원’은 “어떤 주제나 교육 내용을 편의상 통일성을 가지는 하나로 묶은 학습의 단위”(박삼서, 1999 : 187)이다.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별로 세부 성취 기준이 마련된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나누어, 학습자들이 접근 가능한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단위가 교과서 내 ‘단원’이다.

최근의 국어 교과서는 대단원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 대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심으로 삼아 소단원을 분류하는 위계적 구성을 취한다. 그러나 해방 직후 국어 교과서는 소단원의 제재만 나열하거나, 제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한 소단원 학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국어 교과서에 대단원과 소단원의 중층적 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4차 중학교 교과서부터이다. 대단원 체계는 대단원을 중심으로 상위의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그 하위에 다시 소단원별로 교육목표를 배치하면서 교수-학습 내용이 통합적·입체적으로 제시되는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수요목기의 1953년본 <중학 국어 1-1> 교과서나 1차 교육과정기의 1956년본 <초등 국어 3-1> 교과서는 대단원과 소단원 체계로 구성되었다(박봉배, 1997 : 75). 그러나 예외적 사례는 이후 교과서에서 그 성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은 채 개별 사례로 그치고 말았다.

교과서 단위 구성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검토한다. 대단원 내 구조가 유사성을 보이는 교수요목기 / 1~5차 교육과정기 / 6~7차 교육과정기

로 삼분하여 살펴본다.

교수요목기 국어 교과서는 아직 학년별 분권 체제가 확정되기 이전이며, 하위 단원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단원으로 구성되었기에 교과서 한 권 내 대단원 수가 많다. 소단원들을 상위로 묶어내는 대단원 체계가 일반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읽기 자료인 제재가 개별 단원의 핵심 내용을 이루며 나열되었다. 읽기 자료 중심의 국어 교과서 구성은 당시 국어교육에서 시급하게 담당해야 할 일이 ‘한글 읽기 능력의 향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교수요목>(1946)에서 국어교육의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짓기/쓰기’로 구분하여 교수 사항을 언급한 것¹³⁾과 무관한 교과서 구성이다. 즉, 읽기 자료 중심의 국어 교과서 구성은 국어교육 내 다른 영역은 교과서에서 배제한 채, 국어 교과서 단원 전체가 ‘읽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별 단원들의 학습 차이는 다양한 갈래의 읽기 제재를 통해 서로 다른 갈래의 글 읽기로 구현되도록 의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 2〉 교수요목기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교육과정	학령	교과서명	대단원 수	대단원 구성		
교수요목 1946 -1954	초등	한글 첫 걸음 (1945)	41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초등	초등 국어 교본 상(1945)	45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초등	초등 국어 1-1 (1948)	12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초등	국어 1-1 (전시기, 1954)	12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중등	중등 국어 교본 상 (1946)	53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중등	중학교어 1-1 (전시기, 1953)	5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의 연쇄 제재	(없음)

13) “국어는 읽기와 말하기와 듣기와 짓기와 쓰기로 나누어 가르친다.” 미군정청 편수국, <국민학교 교수요목>, 1946, 9, 1. (三) 교수 사항.

대단원 수가 유독 적은 <중학 국어 1-1>(1953)은 대단원과 하위 소단원으로 구성된 예외적 체계를 보여준다. 예컨대 첫 번째 대단원 ‘I. 일상어(日常語)의 반성(反省)’ 하위에는 4개의 소단원으로 ‘1. 우리의 자량(識量) 2. 두부 장수(壽數) 3. 마지막 수업(알폰스·도오테) 4. 어두운 시절(안응렬 번역)’이 제시되었다. 이 교과서는 대단원 전체의 학습 의도를 보여주는 내용, 즉 일종의 ‘단원의 길잡이’가 대단원 첫머리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대단원 설정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첫 번째 대단원인 ‘I. 일상의 반성’ 첫 머리에는 다음 내용이 제시되었다.

“여러분은 중학생으로서의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때에, 여러분분의 모든 학습의 바탕이 되는 언어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고, 언어와 우리 생활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일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늘 쓰는 말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적은 글과, 국어와 국민 생활과의 관계를 나타낸 소설과를 모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쓰는 말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름).

‘I. 일상의 반성’에서는 ‘언어활동’이야말로 모든 학습의 바탕임을 제한 후, 중학교에서 새로운 학습을 위해 언어활동을 먼저 학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어 대단원 설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소단원의 내용을 ‘언어와 우리 생활의 관계’, ‘국어와 국민 생활의 관계’로 정리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을 소개한 후, 각 읽기 자료의 학습 방향을 밝혀 두었다. 이처럼 소단원을 통합하는 대단원 체계를 갖추자 대단원의 설정 의도와 학습 목표를 설명하는 ‘단원의 길잡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구성을 보인다. 이후 ‘단원의 길잡이’는 2차 고등 국어 교과서에 잠시 등장했다가, 대단원 체계가 자리 잡는 4차 중학 국어 교과서와 고등 국어 교과서 이후 대단원 구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다.

다음으로 1~5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검토한다.

〈표 3〉 1~5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대단원 수	대단원 구성					
1차 1954 -1963	초등	국어 1-1 (1957)	10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중	중학 국어 I-1 (1956)	6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익힘 문제	참고 혹은 주(註)		
	고등	고등국어 I (1957)	7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익힘 문제	참고 혹은 주(註)		
2차 1963 -1973	초등	국어 1-1 (1963)	13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공부할 문제		
	중	중학 국어 I-1 (1966)	5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익힘문제		
	고등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I (1968)	10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익힘문제		
3차 1973 -1981	초등	국어 1-1 (1972)	10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공부할 문제		
	중	중학 국어 1-1 (1974)	5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공부할 문제		
	고등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1975)	10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학습활동		
4차 1981 -1987	초등	바른생활 1-1 (1983)	4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학습활동		
	중	중학 국어 1-1 (1984)	10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문 법	
					제재		공부할 문제		
	고등	고등학교 국어 1 (1984)	15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학습 문제	
					제재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대단원 수	대단원 구성			
5차 1987 -1992	초등	국민학교 국어 읽기 1-1 (1989)	13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학습활동	
	중	중학 국어 1-1 (1989)	17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단원의 마무리
					제재	학습활동	
	고등	고등학교 국어(상) (1990)	11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단원의 마무리
					제재	학습활동	

1차 초등 국어 교과서를 제외하면 중심 제재와 학습 활동이 하나의 소단원을 구성하는 소단원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때 제재를 학습 하는 활동은 ‘익힘 문제와 참고 혹은 주(註)’이거나 ‘공부할 문제’, ‘학습 활동’ 등으로 명명되었다. 소단원의 하위 구성 요소가 제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는 양상은 제재 그 자체가 곧 소단원의 전부였던 교수요목기의 국어 교과서와는 달라진 변모이다. 이후 소단원의 연쇄는 ‘단원의 길잡이’와 소단원 이후 학습인 ‘문법/작문’이나 ‘단원의 마무리’를 포함하며 대단원 체계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아직 대단원 체계가 보이지 않는 3차 중학 국어 교과서, 고등 국어 교과서는 개별 소단원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는 상위의 제목을 붙이되, 전체 소단원에 일련번호를 매김으로써 소단원과 대단원 체계가 뒤섞인 복합 형태를 보여준다.¹⁴⁾

14) 4차 <중학 국어 1-1>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름).

새로운 출발

1. 나라 사랑 2. 오고가는 정 3. 봄 4. 생활의 반성

언어와 민족

5. 언어와 민족 6. 주 시경 선생 7. 폴란드 소녀의 울음 8. 국어 공부

감사

9. 5월 단오 10. 우리가 할 일 11. 싱그러운 첫여름 12. 돌 13. 잘 사는 길

나의 조국

14. 이름 없는 별들 15. 어떤 눈물 16. 작문 노트에서 17. 산 찾아 물 따라

문학 이야기 (1)

18. 문학 이야기 19. 아름다움을 찾아 20. 플루트 연주자 21. 닭 울음 22. 사냥

중심 제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소단원 체제는 읽기 교육 중심의 국어 교과서가 취하는 단원 구성 방식이다. 이것은 읽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읽기 전 전략-읽는 과정 중 전략-읽기 후 전략 중 읽기 후 전략에 집중한 모습이다. 이러한 단원 구성 방식은 국어교육의 6영역을 교과서에 모두 담아내고자 했던 5차 교과서부터 변화한다. 기존 교과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읽기와 문학 단원을 제외한 단원을 살펴보면, 말하기/듣기 단원은 기존의 소단원 구성 체제를 벗어나지 않은 반면, 쓰기 단원과 문법 단원은 대단원의 길잡이 이후 곧바로 학습활동으로 연결되는 활동 중심의 구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중학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 말하기/듣기 단원인 ‘소개하기’의 경우, 대단원의 길잡이 이후 ‘소개에 포함할 내용’, ‘소개 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단원 제재로 제시하고, 학습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 반면 중학 국어 1학년 1학기 14단원 쓰기 단원인 ‘주제 정하기’의 경우, 단원의 길잡이 이후 소단원 제재 없이 곧바로 ‘짧은 글을 읽고 주제 정하기’, ‘삽화를 보고 주제 찾기’, ‘제시한 주제의 적절성 판단하기’, ‘주제에 맞는 글쓰기’ 등의 학습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6~7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검토한다.

〈표 4〉 6~7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대단원 수	대단원 구성								
6차 1992 -1997	초등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1995)	13	(없음)				소단원 학습의 연쇄		(없음)		
								제재	학습 활동			
	중	중학국어 1-1 (1995)	14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단원의 마무리		
								제재	학습 활동			
	고등	고등학교 국어(상) (1996)	10	단 원 의 길 잡 이	학 습 목 표	준 비 학 습	학 습 활 동 원 리	소단원 학습		말 하 기 듣 기	쓰 기	단 원 의 마 무 리
								제재 (중요 어구, 참고)	학습 활동			

교육 과정	학령	교과서명	대단원 수	대단원 구성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한 걸음 더			쉽 터	
7차 1997 -2008	초등	국어 읽기 1-1 (2000)	4				제재	학습 활동	되돌아 보기	더 나 아 가 기			
	중	중학국어 1-1 (2001)	7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학습			생각 나열하기	보충 심화	한 자 공 부	이 단 원 을 마 치 며
							읽기 전 에	제 재	학 습 활 동				
	고등	고등학교 국어(상) (2002)	8	단원의 길잡이	준비 학습	소단원 학습			단원의 마무리			보충 심화 학습	
						제재 (알아 두기, 학습 활동)	학습 활동						

6차 고등 국어 교과서부터 대단원의 서두와 마무리 부분에 좀 더 다양한 학습 내용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대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미리 간략하게 서술하는 ‘단원의 길잡이’뿐만 아니라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대단원의 교수-학습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어 대단원 전체에 대한 준비 학습과 학습할 원리를 제공하여 본격적인 소단원 학습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은 이전 국어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6차 고등 국어 교과서는 소단원 각 페이지의 하단에 중요 어구를 제공함으로써 소단원에 제시한 읽기 제재의 이해를 돕도록 편집하였다.

대단원의 서두에서 사전 학습을 제시하고 소단원 학습이 보다 단계화된 것은 7차 교육과정기의 전 학교 급별 교과서에 그대로 이어졌다. <표 4>는 7차 초,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 대단원의 구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복잡해진 양상을 보여준다. 7차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에서는

소단원 학습 이전뿐만 아니라 소단원 학습 이후가 강화되었다. 7차 교육 과정이 내세운 수준별 교수-학습이 반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에서 수준별 교수-학습은 주로 소단원 학습 후 대단원의 마무리 부분에서 ‘되돌아보기’, ‘나아가기’ 혹은 ‘보충 심화’ 학습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7차 국어 교과서 중 이전 시기 교과서와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이다. 6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이 따로 없고 소단원이 곧 대단원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7차 초등 국어 1학년 1학기 교과서부터 대단원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전체 대단원 수가 4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습 목표를 구심으로 삼아 교수-학습 내용을 위계적으로 구상하는 대단원 체계가 초등 국어교육 단계부터 고등 국어교육 단계까지 안착하였음을 보여준다.

IV. 학교 급별 1학년 1단원의 변화

이제 학교 급별 국어 교과서의 1학년 1학기 1단원의 변화를 살핀다. 각 학교 급별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하는,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을 전진 배치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각 단위 학교에서 중시하는 학습 내용의 위계적 배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국어 교과별 고려 이외에도 상급 학교로 진학한 학습자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학교 생활상의 문제와 교과 학습상의 문제를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담아내느라 고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첫 단원을 살펴본다.¹⁵⁾ 5차 교육

15) 주세형(2006)은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문법 교육 내용 변천을 살핀 바 있

과정기부터 초등 1학년 국어 교과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3종으로 분리되었는데, 이전 교과서 학습 내용과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읽기> 교과서이기에 <읽기>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대표 자료로 삼아 검토한다.

〈표 5〉 해방 이후 초등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의 변화

교육 과정	교과서명	대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교수 요목 1946 -1955	한글 첫 걸음 (1945)	(없음)	(없음)	-한글 자모를 제시한 후, 받침 없는 글자의 조어 방법을 보여준다.
1차 1955 -1963	국어 1-1 (1957)	우리 학교	(없음)	-삼화가 주를 이뤄 그림 읽기가 주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등교 삼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삼화, 수업 시간 삼화, 발표하는 삼화, 학교에서 동물을 기르는 삼화, 학교 규칙 관련 삼화 등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단어 : 닭, 병아리, 오리, 토끼, 길조심, 음악,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2차 1963 -1973	국어1-1 (1963)	1. 우리 학교	(없음)	-삼화가 주를 이뤄 그림 읽기가 주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등교 삼화, 선생님께 인사하는 삼화, 친구들과 인사하는 삼화, 수업 시간 삼화, 학교 삼화, 책을 읽는 삼화 등이 제시되었다.
3차 1973 -1981	국어 1-1 (1972)	1. 우리	(없음)	-삼화가 주를 이뤄 그림 읽기가 주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등교 삼화, 선생님께 인사하는 삼화, 친구들과 인사하는 삼화, 수업 시간 삼화, 학교 삼화, 책을 읽는 삼화, 거리 삼화, 집 앞 삼화 등이 제시되었다. -단원 전체에 제시한 단어가 다섯 단어(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다. -첫 단어 : 나, 너, 우리

다. 1학년 국어 교과서 전체의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교육 과정	교과서명	대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4차 1981 -1987	바른생활 1-1 (1983)	우리나라	1. 파란 하늘 2. 아기나무 3. 우리 나라 4. 윤희와 영이	-첫 단어 : 하늘, 파란 하늘 -사회화적 성격이 짙은 제재가 제시되었으 며 학습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원의 말미에 글씨쓰기가 제시되었다.
5차 1987 -1992	국민학교 국어 읽기 1-1 (1989)	1. 우리	(없음)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단어) -첫 단어 : 나, 너, 우리 ※ 2단원 :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구 절, 문장) 바른 자세로 글을 읽는다. ※ 3단원 :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인사말)
6차 1992 -1997	국민학교 국어 읽기 1-1 (1995)	1. 우리	(없음)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단어) -첫 단어 : 나, 너, 우리 ※ 2단원 :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구 절, 문장) ※ 3단원 :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인사말) ※ 4단원 : 바른 자세로 글을 읽는다.
7차 1997 -2008	국어 읽기 1-1 (2000)	첫째 마당 알고 싶어요	1. 새로운 마음 으로 2. 배우는 우리 한 걸음 더	-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림을 보고 글을 읽는다. 바른 자세로 글을 읽는다.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읽는다. -첫 단어 : 우리, 나, 너

교수요목기의 <한글 첫 걸음>은 해방 직후 한글 자모에 대한 기본 학습을 의도하고 마련된 교재이다. 따라서 한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제시한 후, 자음과 모음을 합쳐 조어하는 방식, 예를 들어 ‘ㅂ’과 ‘ㅏ’를 합쳐 ‘바’를, ‘ㄷ’과 ‘ㅏ’를 합쳐 ‘다’를 만들어 단어 ‘바다’를 완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단원에서 한글의 조어 사례를 제시한 후, 단어, 문장, 짧은 글, 긴 글의 단위로 범위를 확장해가며, 한글 기본 학습서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1차 교육과정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1학년 1학기 교과서는 7차 교과서를 제외한다면 대단원과 소단원의 구분이 없다. 이 중 다른 교육과정기와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 4차 교육과정기

의 <바른생활1-1>을 제외한다면,¹⁶⁾ 초등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은 비교적 유사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단원과 소단원 구성을 취한 7차 교과서는 5~6차 교과서의 1단원부터 3단원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단원으로 포함시킨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단원에서는 글자를 학습하기 이전, ‘그림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글자 학습의 동기를 끌어내고자 하기에 초등 1학년 1학기 첫 단원의 내용은 대체로 삽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때 1~3차 교과서의 삽화끼리, 5~7차 교과서의 삽화끼리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1~3차 교과서는 등교 시간 삽화, 선생님 혹은 친구와 인사하는 삽화, 수업 시간 삽화, 책을 읽는 삽화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삽화가 주를 이룬다. 반면 5~7차 교과서는 초등 1학년 또래 아이들의 삽화, 아버지, 어머니와 아기 모습 등 가족을 제시한 삽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1~3차 교과서는 처음 학교에 입학한 후, 가정과는 다른 또래 집단생활에 학습자를 적응시키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 5~7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유치원 등을 통해 또래 집단을 겪어온 학습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학습자들이 초등학교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5~7차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는 기초 어휘로 제시하는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기’ 등과 일치하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처음 제시하는 단어는 3차 교과서에서 ‘나, 너, 우리’가 제시된 후, 4차 바른생활 교과서에서는 ‘하늘, 파란 하늘’로 새로운 흐름을 보였다가 5차, 6차 교과서에서 ‘나, 너, 우리’로 회귀하였으며, 7차 교과서에서 ‘우리, 나, 너’로 단어 배열의 순서가 달라졌다. ‘나’, ‘너’, ‘우리’는 받침이 없는 한글의 기본 조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과 또래 친구를 일컫는 용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국어 교과서의 첫 학습 단어로 선정되었다.

16) <바른생활1-1>(1983)의 첫 단원 첫 삽화는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합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1단원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사회과적 성격이 짙은 제재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1단원의 변화를 살핀다. 7차 중학 국어 교과서는 <중학 국어>와 <생활국어> 나뉘지만, 여기에서는 <중학 국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표 6〉 해방 이후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의 변화

교육 과정	교과서명	대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교수 요목 1946 -1954	중학 국어 1-1 (1953)	I. 일상어의 반성	1. 우리의 자랑	-바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늘 쓰는 말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상어에 대한 글, 국어와 국민 생활의 관계를 나타낸 문학작품을 제시한다. -1단원은 말의 역할과 우리말의 소중함을 강조한 논설문이며, 2단원은 일상어의 소중함을 다룬 수필이다. -3단원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며, 4단원은 〈퀴리부인전〉이다.
			2. 두부 장수	
			3. 마지막 수업	
			4. 어두운 시절	
1차 1954 -1963	중학 국어 I-1 (1956)	I. 국어 생활	1. 문자와 문화	-국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국어교육의 목적과 하위 범주를 설명하는 단원이다. -3단원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다.
			2. 국문만 쓰도록 하자	
			3. 마지막 공부	
			4. 국어 공부의 목적	
2차 1963 -1973	중학 국어 I-1 (1966)	I. 새살림	1.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생활과 중학교 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안내의 성격을 띤 단원이다. -1단원은 학생 글이다. -2단원은 회의록이다. -3단원과 4단원은 설명문이다.
			2.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사전 사용법	
			4. 문법이란 무엇인가	
3차 1973 -1981	중학 국어 1-1 (1974)	새로운 출발	1. 나라 사랑	-대단원으로 수렴되는 상위의 목표를 찾아내기 어렵다. -1단원은 ‘국가’, ‘한글’, ‘민족’을 다룬 글들을 발췌하여 제재로 제시하였다. -2단원은 편지 글을 제시하여 편지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원이다. -3단원은 시와 시조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원이다. -4단원은 일기 글을 제시하여 일기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원이다.
			2. 오고가는 정	
			3. 봄	
			4. 생활의 반성	

교육 과정	교과서명	대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4차 1981 -1987	중학 국어 1-1 (1984)	1. 시	(1) 시의 세계	-다루는 시는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먼 길>(윤석중), <달밤>(조지훈), <물새알 산새알>(박목월),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이다. -산문과 대비하여 시 갈래의 특징 중 '운율'의 이해와 경험에 초점을 둔다.
5차 1987 -1992	중학 국어 1-1 (1989)	1. 소개하기	(1) 자기 소개	-말하기 중 '소개하기'를 목표로 하는 단원이다.
			(2) 친구, 가족 소개	-각 단원에서 '자기소개', '친구와 가족 소개', '학교 소개'에서 포함할 내용과 방법을 줄글로 설명한 후, 학습활동에서 소개하기 활동을 한다.
			(3) 우리 학교 소개	
6차 1992 -1997	중학 국어 1-1 (1995)	1. 시의 운율	(1) 시조	-시의 '운율' 개념을 이해하고 시의 '운율'을 경험하고 느끼는 데 초점을 둔다.
			(2) 엄마야 누나야	
			(3)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4) 해	-운율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와 은근히 느껴지는 시를 통해 시의 운율에 대하여 학습한다.
			(5) 풀잎	
			(6) 행복	
7차 1997 -2008	중학 국어 1-1 (2001)	1. 문학의 즐거움	(1) 새봄	<학습 목표>
			(2) 아버지의 유물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3) 어린 날의 초상	-문학 작품을 즐겨 읽을 수 있다.
			(4) 이해의 선물	

초등 국어 교과서와 달리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서는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상의 특성이 반영된 양상이 더 뚜렷하다.

해방 직후인 교수요목기부터 초기 교육과정인 1, 2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수-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학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말과 글을 박탈당한 상태였던 일제 강점기에 '국어교육'으로 강제되었던

일본어 교육과, 1937년 이후 공교육 내에서 공식적으로 교육되기 어려웠던 조선어 교육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비롯하는 바 크다. 일제 강점기에서 막 벗어난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중학 국어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는 국가, 국어, 국민 생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키며, 국어교육의 목적과 하위 범주 등을 학습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¹⁷⁾

3차 중학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원으로 수렴되는 상위 목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소단원 1에서는 ‘국가’, ‘한글’, ‘민족’을 다룬 글을 발췌하여 제재로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 교육과정의 첫 단원에서 국가-국민-국어-국어교육의 관계를 강조하였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3차 국어 교과서부터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 교육 헌장’ 등이 수록되었다는 점과 수록된 제재 중 하나가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의 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어 교과서에서 강화된 ‘국가주의적’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소단원 2·4는 편지, 시가, 일기 등의 다양한 갈래를 제시하여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다른 갈래에 비하여 비교적 분량이 적고, 읽기 부담이 적은 갈래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첫 단원에서 학습 부담이 적은 제재로 1학기 학습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담아낸다. 4차와 6차 중학 교과서의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도 ‘시’ 갈래를 다루고 있는바, 1학기 첫 단원 학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을 경계하며 텍스트의 길이와 이해의 정도를 반영한 시 갈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5차 중학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소개하기’를 다루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읽기 교육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 활동 전반의 교육이 강화된 5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원의 배치이다. 또한 국어교육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소개하기’를 통

17) 최근 6차 국어 교과서와 7차 국어 교과서는 국어교육의 목적과 영역, 교과서 활용법을 비롯한 교수-학습 방법을 교과서 서두의 ‘일러두기’에 제시하였다.

해 새 학년 교실에서 중학 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학교생활을 도우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7차 중학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는 ‘시’와 ‘옛날이야기’, ‘수필’, ‘소설’ 등 문학의 다양한 갈래들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7차 중학 국어 교과서 중 <중학 국어>에서는 ‘읽기’와 ‘문학’을, <생활국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를 다루도록 영역을 분할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읽기 자료 중 문학의 여러 갈래들을 즐겨 읽고 체험 한 후,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현상은 곧 초등 국어교육에서 가장 먼저 교수-학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반면, 중학교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합의되기 어렵거나 합의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등 단계의 국어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글의 자모를 익히는 것이 학습의 첫 단계로 설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중학교 국어교육에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 활동의 다방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그 중 무엇을 중학교 국어교육의 첫 단계로 설정하는가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교육 각 영역 학습 내용의 위계가 마련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1단원의 변화를 살핀다. 교수요목기는 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은 6년제 중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재가 제안되었던바,¹⁸⁾ 1차 교육과정기부터 <고등학교 국어1>을 검토하되, 인문계, 실업계로 고등학교 교과서가 나뉘었던 2차와 3차 교과서는 인문계 교과서의 1단원을, 상·하권 2종 체제가 된 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상권의 1단원을 검토한다.

18) “광복 이후 새로 채택한 학제는 단선형 학제인 6-3-3-4제를 골격으로 하면서도 과도적인 조치로서 6-6-4제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교수요목기 학제의 변화는 윤종혁(2008 : 223-225) 참조.

〈표 7〉 해방 이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의 변화

교육 과정	교과서명	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1차 1954 -1963	고등 국어 I (1957)	국어 생활의 이모 저모	(1) 고운 음성과 바른 말	-1단원에서는 말하기, 듣기 학습의 중요성을, 2단원에서는 방송 용어의 특징을, 3단원에서는 수필 메모광을 다루었다. -‘국어 활동’과 ‘국어 생활’의 특징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방송 용어의 특이성	
			(3) 메모광	
2차 1963 -1973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I (1968)	I. 현대 문학의 감상	(1) 일기와 편지	-다양한 현대문학 갈래를 감상한다. -각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2) 현대 시조	
			(3) 뽕나무와 아이들	
			(4) 청춘 예찬	
3차 1973 -1981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1975)	이름다운 청춘	(1) 3월의 고향	-시, 논설문, 수필, 소설 등 서로 다른 갈래의 글이 하나의 대단원으로 묶여 있다. -〈공부할 문제〉를 통해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추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갈래의 글을 읽는 방법을 파악한다’ ‘글의 주제를 안다’
			(2) 국어 교육의 목표	
			(3) 청춘 예찬	
			(4) 금당 벽화	
4차 1981 -1987	고등학교 국어1 (1984)	시	(1) 3월 1일의 하늘	-시 속의 심상과 비유를 알아보자. -시에 쓰이는 상징의 의미를 알아보자. -〈학습문제〉에서는 소단원에 제시된 시 속의 심상과 비유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 깃발	
			(4) 광야	
			(5) 가을의 기도	
			(6) 성탄제	
5차 1987 -1992	고등학교 국어(상) (1990)	설명	(1) 설명의 의의	-설명하는 말하기와 듣기를 학습한다. -본문 제재가 설명의 의의와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며, ‘설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학습활동에서 설명 ‘활동’을 진행한다.
			(2) 설명의 방법	

교육 과정	교과서명	단원명	소단원명	소단원 내용
6차 1992 -1997	고등학교 국어(상) (1996)	읽기의 본질	(1) 독서와 인생	-학습목표 제시 1.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안다. 2.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알고, 그에 따라 글을 읽는다. 3.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말하기·듣기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라 말하고 듣는다. 4.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라 글을 쓴다.
			(2) 불국사 기행	
			〈말하기·듣기〉 대화로서의 말하 기·듣기	
			〈쓰기〉 대화로서의 쓰기	
7차 1997 -2008	고등학교 국어(상) (2002)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 황소개구리 와 우리말	-학습목표 제시 •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 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
			(2) 그 여자네 집	

고등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의 경우 1차와 5차 교과서 사이에, 그리고 1차와 5차를 제외한 2차, 3차, 4차, 6차, 7차 교과서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주요 경험에 따른 지도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고 있다. 1차 고등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말하기·듣기, 방송 용어, 메모 등 국어 활동과 국어 생활을 제시한 것은 교육과정 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과서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을 당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¹⁹⁾

2차 교육과정기 이후,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국어 교과서의 첫 단원은 문학 갈래 혹은 읽기 자료 중심이었다. 이 흐름은 4차 고등 국어 교과서까지 이어지다, 다시 국어 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5차 교과서에서 말하기·듣기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 활동이 강조되면서 말하기·듣기 교육도 말하기·듣기의 일반이 아니라 ‘설명하는 말하기·듣기’와 같은 갈래 중심의 교육 내용이 제시되었다.

19) 물론 이러한 현상이 당시 국어교육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 활동을 충실하게 교육하였는가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1차와 5차를 제외한 다른 교육과정 시기 고등 국어 1학기 첫 단원에서는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의 읽기 제재가 제시된 읽기 교육이 설계되었다. 세부적 학습 초점은 조금씩 다르다. 2차, 3차, 4차 교과서에서는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고, 갈래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 방법의 학습이 강조되었다. 6차 교과서에서는 ‘읽기’가 지닌 의사소통적 특징이, 7차 교과서에서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읽기가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V. 결론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초등·중등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자가 접하는 첫 교과서—초등학교 1-1학기, 중학교 1-1학기, 고등학교 1학년(혹은 상권)—의 초판을 기준으로 서지 사항, 단원의 구조, 1단원 학습 내용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서지사항은 국어 교과서가 처한 외형적 조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단원 체계와 내용을 통해 문서화된 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의 의도적 교육과정을 해석해 낸 당대 국어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관점과 학습자들이 경험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험적 교육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 국어 교과서의 저자는 민간 학회인 조선어학회이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내에서 문교 행정을 담당하는 문교부-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로 이어졌다. 4차 이후 저자와 편찬자가 분리하였는데, 교과서 편찬 기관은 국가 기관에서 민간의 기관으로 이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의 판형은 신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변화하며 ‘읽기’ 중심의 강독 교재에서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변모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기본 학습 단위는 ‘단원(單元, unit)’이다. 최근의 국어 교과서는 대단원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 대단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삼아 소단원을 분류하는 위계적 구성을 취한다. 그러나 해방 직

후 국어 교과서는 소단원의 제재만 나열하거나, 제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한 소단원 학습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국어 교과서에 대단원과 소단원의 중층적 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4차 중학교 교과서부터이며 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 초등 국어 교과서부터 고등 국어 교과서까지 대단원 체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각 학교 급별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하는,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을 전진 배치시키기 마련이다. 초등 국어 교과서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4차 교육과정기의 <바른생활 1-1>을 제외하면, 초등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글자를 학습하기 이전, ‘그림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글자 학습의 동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4차 바른생활 교과서를 제외한 초등 국어 교과서의 첫 학습 단어는 ‘나’, ‘너’, ‘우리’였다. 이는 받침이 없는 한글의 기본 조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과 또래 친구를 일컫는 용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국어 교과서의 첫 단어로 선정되었다.

초등 국어 교과서와 달리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상의 특성이 반영된 양상이 더 뚜렷하다. 초기 교육과정에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수-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원이 마련되었으며, 3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국가주의적 특징을 반영한 단원이, 5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읽기’ 단원이 아닌 ‘말하기/듣기’ 단원이 제시되었다.

고등 국어 교과서는 1차와 5차 교과서에서는 국어 활동을 중심에 둔 학습 내용이 제시된 반면, 1차와 5차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육과정 시기 고등 국어 1학기 첫 단원에서는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의 읽기 제재가 제시된 읽기 교육이 설계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를 선별하여 시대별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 한편, 국어 교과서에 대한 입체적 고찰로 나아가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자료

- 조선어학회(1945),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발행,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조선어학회(1945), 『초등국어교본 상』, 군정청 학무국 발행,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문교부(1948), 『초등국어 1-1』, 문교부 발행,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문교부(1954), 『국어 1-1』, 문교부 발행,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문교부(1957), 『국어 1-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문교부(1963), 『국어 1-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2), 『국어 1-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83), 『바른생활 1-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89),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5),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한국교육개발원 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0), 『국어 읽기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선어학회(1946), 『중등국어교본 상』, 군정청 학무국,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문교부(1953), 『중학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56), 『중학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6), 『중학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4), 『중학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4), 『중학 국어 1-1』, 한국교육개발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89), 『중학 국어 1-1』, 한국교육개발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5), 『중학 국어 1-1』, 한국교육개발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 국어 1-1』,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1종도서 편찬위원회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56), 『고등국어 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68),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75),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84), 『고등학교 국어 1』, 한국교육개발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문교부(1990), 『고등학교 국어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6), 『고등학교 국어 (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국어 (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편, (주) 두산.

미군정청 편수국(1946), “국민학교 교수요목”.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05]—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05]—국어과 교육과정”.

김동환(2009), “문장지와 국어교육”,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김혜정(2004), “근대 이후 국어과교재 개발에 대한 사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김혜정(2005), “국어 교재의 문종 및 지은이 변천에 대한 통사적 검토—현대 교육과정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김혜정(2009), “국어 교육용 텍스트 자료 유형에 대한 연구—역대 교육과정 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한국어교육학회.

남민우(2005),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연구』 24집, 한국어교육학회.

박봉배(1992), 『한국 국어교육 전사』 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봉배(1997a), 『한국 국어교육 전사』 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봉배(1997b), 『한국 국어교육 전사』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삼서(1999), “단원”,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187쪽.

서명희·조희정(2006),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 『한국초등국어교육』 3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윤종혁(2008),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이우호(1992), “광복 직후의 한글 강습과 국어 교재 편찬”, 『광복 후의 국어교육』, 한샘.

이종국(2001),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정재찬(1996), “한국 현대시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조희정(2011), 『고전문학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조희정·서명희(2006),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 『문학교육학』 1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주세형(2006),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 변천 양상”,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초록>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연구

조희정

본 논문은 해방 이후 각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자가 접하는 첫 교과서—초등학교 1-1학기, 중학교 1-1학기, 고등학교 1학년(혹은 상권)—의 초판을 기준으로 서지 사항, 단원의 구조, 1단원 학습 내용을 고찰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 국어 교과서의 저자는 민간 학회인 조선어학회이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내에서 문교 행정을 담당하는 문교부—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로 이어졌다. 4차 이후 저자와 편찬자가 분리하였는데, 교과서 편찬 기관은 국가 기관에서 민간의 기관으로 이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의 판형은 신국판에서 4×6배판으로 변화하며 ‘읽기’ 중심의 강독 교재에서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변모하였다.

국어 교과서의 기본 학습 단위는 ‘단원(單元, unit)’이다. 해방 직후 국어 교과서는 제재 자체가 단원 전체인 모습을 띤다. 읽기 자료 중심의 국어 교과서 구성은 국어교육 내 다른 영역은 교과서에서 배제한 채, 국어 교과서 단원 전체가 ‘읽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별 단원들의 학습 차이는 다양한 갈래의 읽기 제재를 통해 서로 다른 갈래의 글 읽기로 구현되도록 의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후 국어 교과서는 제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소단원의 연쇄 구조를 취하다가, 4차 중학교 교과서부터 대단원과 소단원의 중층적 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각 학교 급별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하는, 국어교육의 학습 내용을 전진 배치시키기 마련이다. 4차 교육과정의 <바른생활 1-1>을 제외하면, 초등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그림 읽기’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글자 학습의 동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찾아내기 어렵다. 고등 국어 교과서는 1차와 5차 교과서에서는 국어 활동을 중심에 둔 학습 내용이 제시된 반면, 다른 시기에는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의 읽기 제재가 제시된 읽기 교육이 설계되었다.

【핵심어】 국어교육, 교과서,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적 변천, 서지 사항, 단원, 1학년, 1단원

<Abstract>

The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Korean Textbooks

Cho, Hee-jung

This thesis aimed to research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the structure of a unit an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in the Korean textbooks during all periods of curriculum after Korea's emancipation. The materials for this study are the first edition of the first grade Korean textbooks in a primary school, a lower secondary school and a upper secondary school.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uthors of Korean textbooks were an academic society which was named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fter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ment, authors were replaced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government.

The format of Korean textbook was changed from A5 size in black and white to B5 size in full color, which reflected a change of the viewpoint that a textbook was a workbook for a learner's language activity, not a set of materials for reading.

The Korean textbook is composed of a lot of units. The first unit looks the first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 in the each school step.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etters, which used various illustrations, has been focused on in the first unit of the primary Korean textbook. As distinct from the primary Korean textbook, there is nothing in common with between the first unit of lower secondary Korean textbooks. The contents of the first unit of upper secondary textbooks were both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based on Korean activity, speaking and listening, and various materials for reading including Korean literature.

【Key words】 Korean Education, textbook, curriculum, primary school, a lower secondary school, a upper secondary school, historical change, unit, a first-year student, first unit